학생기자단 활동 후기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전국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기 학생기자단을 모집하였고, 총 10명의 학생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2025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학계와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수리과학자들을 소개하고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소식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다음은 학생기자들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작성한 참여 후기 글이다.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 김가연 학생기자

학생기자단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학술대회와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대중강연, 기조강연, 분과발표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강연을 통해 KWMS의 역사를 들으며 학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수학교육과 응용수학 분과 발표에서는 수학이 일상과 맞닿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 연구와 예비 교사 교육을 다루는 수학교육 발표부터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처럼 현실 문제를 다루는 응용수학 연구까지, 수학이 정말 멋진 학문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연에서의 배움만큼이나, 사람들과의 만남도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기자단 동료인 또래 대학생들부터 취재를 통해 수학자, 기업체의 수학 전공자, 대학원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학이라는 같은 관심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만큼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분들께 감사드리며, 학생기자로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KWMS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꿈의 발자취를 담아내며 꿈을 꾼 시간>, 김현아 학생기자

학생기자단 활동을 시작할 당시, 설렘 속에 작은 기대와 포부를 품고 있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게 이 활동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훨씬 더 넓고 깊은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여러 여성 수학자 선배님들은 자연스럽게 성장 방향성을 고민하게 한 소중한 롤 모델이 되었으며, 함께 활동한 학생기자단 동료들은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불어넣어 준 든든하고 고마운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기획과 취재, 글쓰기를 모두 직접 경험하며 수학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글의 힘과 중요성, 그리고 마음을 담은 소통이 무엇인지 배웠던 경험이 각별하게 남습니다.

돌이켜보면 학생기자단 활동은 제가 처음 품었던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학문적·개인적·사회적으로 모두 값진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기자단 활동은 곧 막을 내리지만, 이 경험을 통해 얻은 넓어진 시선과 수학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그려나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 수학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 안수인 학생기자

이번 기자단 활동을 통해 여성 수학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여러 수학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실제 연구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수학자의 삶을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수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가는 동시에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수학적 탐구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수학에 대한 배움을 차근차근 쌓아 간 시간>, 유나연 학생기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학생기자단 활동은 수학이 연구실 안에서 끝나는 학문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되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떠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발표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점점 핵심을 파악하고 질문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 이후에는 뉴스레터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주제들도 한 계단 두 계단 따라가다 보니 조금씩 눈에 익고 이해가 깊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학생기자단 활동을 통해 저는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만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찾아보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을 넓혀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기자단으로서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며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이런 경험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기자단에서 배운 태도와 시선이 앞으로의 학업과 경험에서도 꾸준히 쌓여갈 수 있도록 배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수학의 세계 속을 잠시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계기>, 이다현 학생기자

국제학술대회를 다녀온 이후,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배운 수학은 드넓은 수학 세계의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나 수학 좀 하지~'라는 생각을 가졌었다면, 수학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며 겸손함을 갖게 되었고 내가 모르는 것들에 관해 많이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학의 거대한 세계를 맞본 후, 여운을 가지고 리더스 포럼에 참석하였고, 수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사 글을 쓰고자 교수님 한 분을 모셔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재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수학을 너무 놀이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수학의 본질은 끈기를 가지고 깊고 오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사는 아이가 빨리 답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지루해 보이더라도 꿋꿋이 기다리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KWMS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학생 기자단에 다시 참여하여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이민서 학생기자

저에게 수학자는 늘 존경하는 대상이었고, 교수님은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2~3년간 함께 한 교수님들과 면담하는 것도 긴장되고 어려운데, 초면에 인터뷰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학생기자단 활동을 통해 교수님들의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주신 Bruce Berndt 교수님과 이은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학교의 수학과 생활은 어떤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수학계의 훌륭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열정과 깊이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 이슬기 학생기자

수학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학생기자단 지원서를 작성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합격의 기쁨과 함께 그만큼의 책임감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통해 국제학술대회와 리더스포럼 등 다양한 학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는 잊지 못할 경험도 했습니다. 단어와 문장을 다듬으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동안 깊은 고민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강연을 들으며 수학계에서 오랜 연구 끝에 성과를 이루신 분들의 위대함과 그 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을 느꼈습니다. 학부 공부를 넘어, 수학이 어떻게 확장되고 응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들으며 수학을 더욱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간 이어진 프로젝트 마무리를 앞두고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위원분들, 간사님, 그리고 학생기자단 여러분의 도움과 애정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학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무대 위의 조명처럼 학회의 현장을 비추며, 함께 성장했던 KWMS 기자단 활동>, 이윤서 학생기자

유일하게 3,4기 연속으로 활동한 단원이자 이번에는 기자 단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처음 도입된 기자 단장이라는 역할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되었고 직접 부딪히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부생의 시선으로 학회 현장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적 배움보다도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점이 더욱 값졌습니다. 2년간 KWMS의 다양한 현장을 취재하며, 수리과학자들이 자신 있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선후배, 동료들과 학문의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히 빛나는 이들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고, 학문이 가진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2024년 성년을 맞은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2025년을 지나 앞으로도 더욱 자유롭고 활기찬 비상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학생기자단에게 늘 애정을 갖고 기회의 장을 열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식이 아닌 사람의 언어로 수학을 표현하며 새로운 시선을 얻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다>, 최서연 학생기자

처음 학생기자단 활동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제학술대회와 리더스 포럼을 진행하며 직접 여성 수학자분들과 연락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의 깊은 연구 내용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많은 여성 수학자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아직 학부생인 저도 언젠가 그분들처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앞으로 한 분야를 깊이 탐구해 저만의 연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수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에게 수학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전하고, 여대생으로서 여성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